

[P1 - 27]

지역행사를 통한 성동구 주민의 영양 실태 조사

이경희*, 권순형¹⁾, 이보숙¹⁾, 전해정*, 박혜련²⁾

성동구보건소*, 한양여자대학 식품영양학과¹⁾, 명지대학교 식품영양학과²⁾

A Study on the nutritive conditions of resident in SeongDonggu events

Kyung-Hee Lee*, Soon-Hyung Kyun¹⁾, Bo-Sook Lee¹⁾, Hye-Jueng Jeon*, Hye-Ryeun Park²⁾
SeongDong public health center*,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Hanyang women's college¹⁾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Myungji University²⁾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소 영양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내 영양사업의 실시 형태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복잡하다. 이러한 결과는 보건소 영양사업 지침과 영양사 업무규정을 정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보건소 영양사업에 대한 실시방법과 결과가 도출되어져야 영양사업 지침이 바르게 제시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보건소 내 행사로 실시되었던 영양사업의 방법과 행사결과를 분석하고 기술 할 것이다. 성동구 보건소에서 실시된 영양행사는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와 연계하여 년 중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어졌다. 사업구성은 크게 체험과 전시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체험사업으로 바코드 부착 음식모형을 이용해 한끼 식사진단과 개인별 영양상담, Inbody 기기를 이용한 체성분 분석, 식생활 속에서 먹고 있는 국의 농도 알기를 실시하였고, 전시사업으로는 1800kcal의 군별 식품량 전시, 식품속의 영양소 함량 도표전시, 소금 1g에 해당하는 식품량 제시, 0.5kg 지방모형제시, 식품표시제도를 알자 등을 실시하였다. 이중 분석된 내용은 체험사업과 만족도조사 결과이다. 지역행사에 참여한 주민은 보건소내소 이용비율이 높은 40-69세가 가장 많았다. 체성분 분석결과에서 WHR이 남자는 0.9이상, 여자는 0.85이상 일 경우를 복부비만으로 판정내릴 때 67%가 복부비만이 였고, BMI 30이상인 비만한 주민이 37.9%가 되었다. 모형을 이용한 한끼 식사진단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식사 메뉴의 형태는 밥+국+김치+부찬2가지가 25%로 가장 높았고, 다빈도 메뉴 음식명을 4순위 까지 보면 밥류는 쌀밥, 콩밥, 보리밥, 잡곡밥 순, 국류는 채소된장국, 미역국, 콩나물국, 청국장찌개 순, 반찬류로는 조기구이, 깻잎찜, 시금치나물, 호박볶음 순, 김치류는 배추김치, 나박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순이었다. 0.25%, 0.5%, 0.75% 농도의 콩나물 국을 이용하여 자신의 식생활속에서 먹고 있는 국 농도를 선택하도록 하였을 때, 0.25%국은 대상자의 25%, 0.5%국은 대상자의 32.4%, 0.75%국 대상자의 41.7%가 선택하였다. 결과 중 관심이 가는 것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일수록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국이 염도가 높은 국을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실생활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체험 할 수 있는 영양교육 자료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개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러한 행사 흥미도는 매우 흥미롭다에 79.4%, 약간 흥미롭다 20.6%로 참여 지역주민 모두가 영양행사에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영양행사가 실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 조사를 해보면 매우 큰 도움을 될 것이다가 69%,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가 29%,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가 2%로 응답하였다. 체험을 위주로 하는 영양사업이 식생활습관을 객관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조사에서 기술 된 사업방법과 결과는 점진적으로 현실성 있는 영양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되어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보고로 식생활상의 문제점 파악은 물론, 제시되기 어려운 영양사업의 방향을 비롯한 지침제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